

폭력에는 성별이 없습니다.

가정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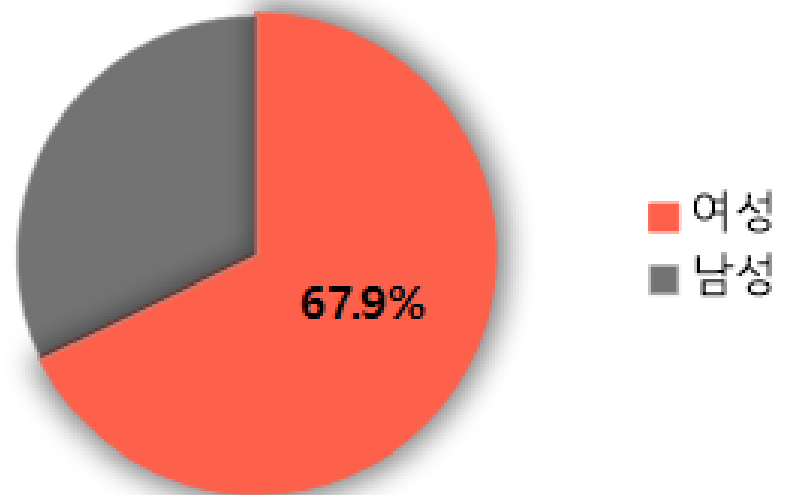
가정폭력 남성 피해자



가정폭력 피해자의 성별



2022 가정폭력 피해자 성비



| 피해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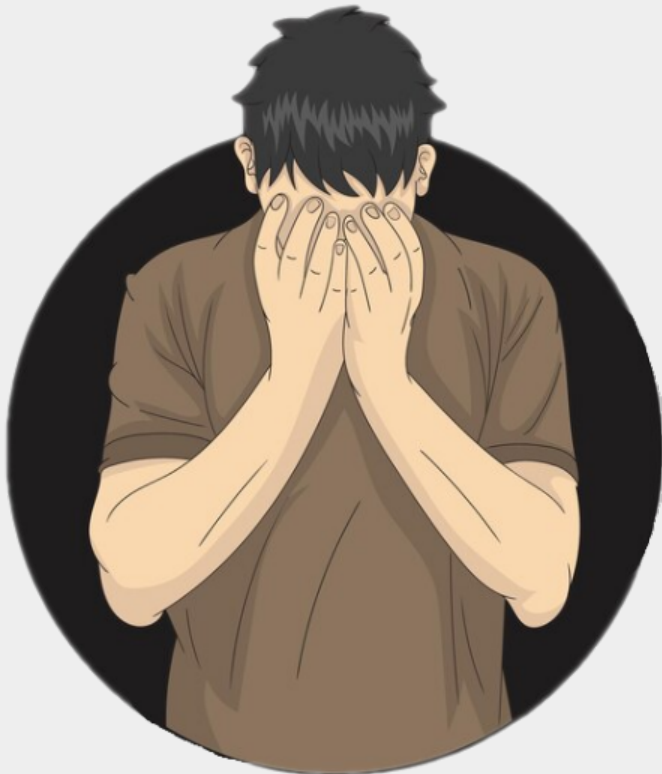
가정폭력의 '**피해자**'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'여성'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. 물론, 통계상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인 것은 맞습니다. 그렇기에 '가정폭력'을 이야기하면 '**매 맞는 아내**'가 쉽게 연상되죠.

가정폭력 피해자의 성별

하지만 남성 피해자들도 적지 않습니다.

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도에는 남성 피해자가 84,771건, 2022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44,559건에 이르렀습니다.

하지만 이들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.



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

연도	남성	여성	전체
2021	8만4771건 (32.1%)	17만9085건 (67.9%)	26만3856건
2022 (6월까지)	4만4559건 (32.6%)	9만2229건 (67.4%)	13만6788건

※전국 가정폭력 상담소는 총 128곳

출처: 여성가족부

가정폭력 피해자의 성별



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

대부분의 가정폭력 피해 남성들은 **'무능한 남편'** 및 **'가정폭력의 원인이 남성에게 있을 것'**이라는 대중의 편견 때문에 주변에 알리기를 꺼려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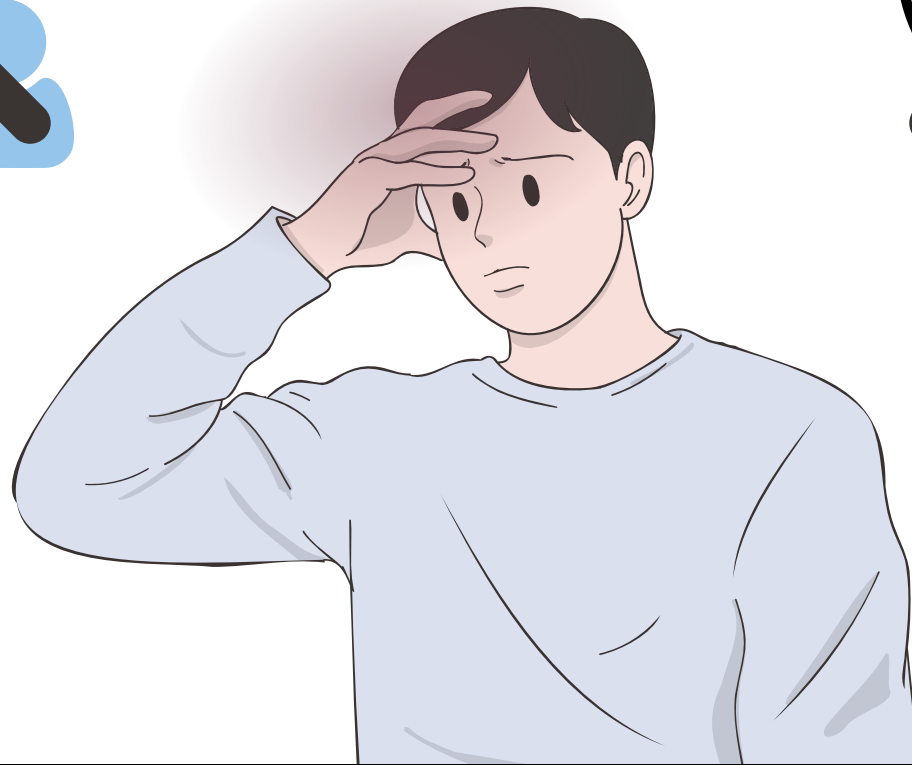
상담 및 보호기관의 부재



상담 및 보호기관의 부재

또한, 가정폭력 피해 남성들을 위한 보호기관이 없어
신고 후에도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피해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

상담 및 보호기관의 부재



2022년 기준 전국 가정폭력 쉼터는 65개,
성폭력 쉼터는 34개가 운영중이나,
그 중 남성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시설은 없었습니다.
(모두 피해 여성이나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)

2023년 1월, 서울에 처음으로 '남성 피해자 쉼터'가 설치되었습니다.

이 쉼터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남성들에게
희망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.



가정폭력 피해자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생기며,
모든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.
수많은 가정폭력 사례 사이에는 어떤 도움이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
남성 피해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.



사단 **서울남성의 전화**
법인 **SEOUL MAN'S HOTLINE**



남성전화상담	02 - 2652 - 0456
가정폭력상담	02 - 2653 - 1366
이혼심리상담	02 - 2652 - 0458